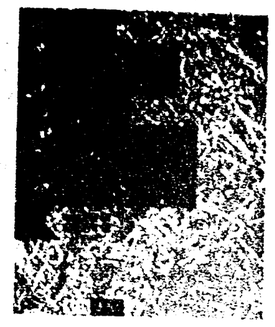
日帝 濟州서 위안부 205명 징발했었다

日本人수기「나는 조선사람을 이렇게…」파문



해방44주년을 맞아 일제시대 제주도에서 위안부로 2백5명을 징용해갔다는 기록이 나와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으나 뒷받침 증언이 없어 파문을 던져주고있다.

42년부터 패전할때까지 약 3년동안 야마구치현노무보국회(山口縣勞務報國會)의 동원부장으로서 조선사람들을 징용하는 일에 종사했던 요시다세이지씨의 전쟁범죄기록 「나는 조선사람을 이렇게 잡아갔다」가 그것으로 청계연구소 현대사 연구실에의해 83년판을 번역 발간한것.

여기에는 「광주에서의 남자 강제연행」과 「제주도에서의 위안부 사냥」에대해서 자신이 직접 가담 색출해 끌고갔던 당시를 기술하고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황군위문 조선인 여자정신대 2백명 △연령18세이상 30세미만△신체건강한자 △기간 1년 △급여 월30엔 △준비금으로 천도금20엔 △근무지 미츠바현 △동원지역 조선 전라남도 해제읍 △파견일시 1943년 5월30일장요 △집합장소 서부군 제74부대단 동원명령까지 상세히 기술했다.

「우리들이 작은 마을의 처녀들을 모두 잡아 싣고 차의 속력을 높여 그곳을 떠났다. 높은 바위산 사이로 뚫린 길을 돌아가자 비암도가보였다. 넓은 바다에는 물단배들이 점점 떠있었고 수평선은 가물가물하게 보였다… 우리가 들어간 건물은 사무실과 공장을겸하고 있었는데, 너댓명의 남자들이 사무를 보고 있었다. 나이가들고 뚱뚱한 남자가 우지사의 긴급명령서가 각 헌찰서장들에게 발송되어 완전 쇄기처분되었다.

그러나 이책의 기록에 의한 제1비행단추공장에서 15~16명을 강제징발했던 기록들이나 법환리등 마을도처에서 행해졌던 이 위안부사건이야기는 이에대한 증언자들이 거의 없다. 그들은 터무니없는 일로 일축하고있어 과연 이 기록의 신빙성에대한 의문을 더욱 던져준다.

제1비행단추공장 정옥단씨(85)는 「그런일은 없다. 2백50여가호밖에 안된 마을에서 열다섯명이나 징용해갔다면 얼마나 큰 사건인데… 당시 그런 일은 없었다」고 잡아뗐다.

함보시하자 김봉옥씨는 「일본인들의 잔혹성과 몰양심적인 일면을 그대로 드러낸것이다. 차마 부끄러워서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그대로 옮겨으로 혀이만 이를을 벌이지도 못하겠다. 83년 원본이 나왔을때 멸해동안추적한결과 사실무근인 부분도 있었다. 오히려 그들의 악독한면을 드러낸 도덕성이 결여된 책으로 말파란상술적인면도 가미되었을 것으로보인다」고분개했다.

【許榮鎬기자】

주민들 "날조…日 몹염치·상술에 분개

저자는 당시 야마구치현 노무보국회 동원부장

"城山浦단추공장·용포·법환리등서 강제징용, 주장

지사의 긴급명령서가 각 헌찰서장들에게 발송되어 완전 쇄기처분되었다.

그러나 이책의 기록에 의한 제1비행단추공장에서 15~16명을 강제징발했던 기록들이나 법환리등 마을도처에서 행해졌던 이 위안부사건이야기는 이에대한 증언자들이 거의 없다. 그들은 터무니없는 일로 일축하고있어 과연 이 기록의

주택 매수해 명의신탁한 경우 소유권 되찾으려면

신탁자는 계약 해지·신탁 재산 반환 청구 가능

<문>저는 10여년 전에 주택 1동을 매수한 후 이를 친지인 「갑」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갑」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갑」의 상속권자인 「을」에게 그 주택의 등기명의를 저 앞으로 다시 환원해 주도록 요청했더니 「을」이 말하기를 자신은 모르는일일라고 우기면서 「병」에게 이를 처분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 주택의 소유권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서귀포시서귀동 김상용>

<답>귀하가 주택을 매수하여 등기명의만 「갑」의 이름을 빌어 「갑」앞으로 해 놓은 것이므로 이는 이른바 「갑」에게 명의신탁을 한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명의신탁을 한 경우 신탁자, 즉 귀하는 언제든지 수탁자인 「갑」 또는 그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명의신탁해약을 해지하고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신탁재산임을 증명하여 수탁자의 상속인인 「을」에게 가옥의 반환과 등기명의를 귀하 앞으로 환원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등기청구를 하는 경우「갑」명의의 등기로부터 귀하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을」이 귀하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므로 소송으로써 이를 청구하는경우 소송의 진행도중에 「을」이 이를 「병」에게 처분하여 버리면 「병」은 유효하게 가옥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귀하는 즉시 「을」을 상대로 가옥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하십시요.일단「을」이 가옥을 처분해 버리면「을」로부터 가옥을 취득한 사람이 신탁재산임을 알고 취득했다고 하여도,만례는 유효하게 그사람의 가옥의소유권을취득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귀하는 「을」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을」은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도 되겠지만, 하여튼 「을」로부터 가옥을 취득한 제3자로부터 가옥 자체의 소유권을 회복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속히 「을」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명령을 받아내어 그 등기를 한후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 22-3295>

여성문학 무크지 여성과 문학」1집

「무크지「여성과 문학」제1집이 나왔다.

한국의 여성문학 연구와 비평 창작발전을 주요 취지로한 이 책의 엮은이는 한국여성문학연구회.

「여성 비평가가 본 80년대 여성작가」를 특집으로 주민이번 호연 정영자의 「현대 여성소설의 특성과 그 문제점」 송명희의 「최근 여성해방소설의 흐름」이 실려 있고 김정자의 「소설의 공간 기법적 의미 분석」등 5편의논문수록.

수재 회원에 특별위로금 교원공제회,1인당 10만원

대한교원공제회 (이사장 손성식)는 지난7월 발생한 집중호우및 태풍「주디」로 인해 피해를 입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재해복구를 위한 부조금을 특별위로금으로 지급키로하고 지난10일까지 접수된 전남. 광주지역 피해회원 1백80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1천8백만원을 1차로 지급했다.

교원공제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지급되는 특별위로금은 기존의 재해부조금과는 별도로 지급된다」고 밝히고 「수해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회원은 소속하교 분회장에서 조속히 신청해줄것」을 당부했다.

주식시세표

<터기증권 제주지점 최선협찬>

유관도

趙宗史作 姜瑢澤画 如夫人 (21) (465)

OASIS 냉·온수겸용 보온물통
"얼음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보리차를 끓일 수 있습니다"
©NEW OASIS 보온물통(냉·온수겸용)의 특징
©NEW OASIS 보온물통(냉·온수겸용)의 경제성
* 제주피어리어도,서귀포대리점모집
* 고소득 능력급 영업사원 수시모집
東京冷凍食品株式會社
제주도총판
현대종합상사
☎52-0380

서귀포
중앙목욕탕
* 대형 휴게실
* 무료 주차장
* 각종 목욕 비품완비) 완공중
중앙사우나
* 이충슬랍
* 물리치료소
* 사우나실
* 1호광장
동문로타리
☎ 62-5070 62 5411

아늑하고 깨끗한 시설! 객실 에어콘가동!
경원장 여관
서귀포 현대 병원앞 33-3338~9

무농약 현미5곡
현미엿기름 현미찹쌀 현미수수 현미 현미콩수
건강정보
상담 33-1412

제주시에도 건축백화점의 幕을 열었습니다.
●건축하자의 90%이상이 방수에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귀하의 주택은 벽이 젖어있지 않습니까?
귀하의 건물은 침수되지 않습니까?
그러하다면 대내산업의 가사리방수액을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사리방수액은 시공건 또는 시공후이라도 단한 방울의 물과 습기를 단호히 차단합니다.
백화제거제 · 방지제—물녹제거제 · 방수제
서울사 우림건축자재
☎ 50 4131~2 / \\ 56 4133

▲스프링 롤러(시설원예용, 과수원용, 정원용)
▲점적예비시스템 관수(화훼, 감귤, 엽채 원예에 필수)
▲PE농약관 매설시공 및 판매
▲PE(흑관)피이프 및 각종 배관 자재
▲매트, 물받이, 스프링풍 하우스자재 일체
▲각종 하우스(조립식, 농수산부식) 시공
새한농자재
㈜판정, 과수원 스프링롤러 시설 용자알선
㈜전적, 설계 무료봉사 상담환영
서귀포시 동문로타리 서귀주유소옆
☎ ㈜0401 FAX ㈜5647

개업
대명 이용원
서사라 트러리 (한국방송공사)노무포레인보지하 43-3478 주.조용기

* 삼신알루미늄휠대리점
* 코코매트대리점
* FIZZ 악세사리
* 코란도 인테리어
* 미쉐린타이어
* 시 트 카 바
* 엔진테스트
* 현대키폭설치및 시공
* 완전자동 * 대형주차장 만족합니다.
삼일카인테리어
구 삼일세차장
* 엔진기시,관리직남자모집 서귀포 구 삼일고교옆 대로 직호지 ☎62-7254